

2018 년 1 월 27 일 “(성경의 큰 숲 보기 - 2) 창세기: 약속의 날개 아래”(창 12:1-3, 47:27; 50:24)

<도입>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이 타락시켰지만 기꺼이 완성이 이끄시기 위해 아브라함/이삭/야곱(족장)과 요셉의 가족사를 통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조를 가능케 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1] 부르심의 배경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한 사람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시는 것(부르심)이었습니다.

강제로 또는 홀려서 불러내시지 않고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고 싶다. 그 약속의 성취를 원한다면 네 자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씀으로 처음으로 만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그에게 큰 슬픈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한 번만은 아니었을 것) 결국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 하나 주시겠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12:1-3).

1 절 땅으로; 2 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3 절.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 -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 → **세가지 요소**(땅, 후손들, 주권적 통치)  
국가란 주권, 국민, 영토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에게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 약속이 되풀이됩니다(테이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공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후손	12:2/13:16/15:5 16:10/18:18/22:17	26:4 (24)	(28:3) 28:14/35:11/48:4
땅	12:7/13:14-15/ 15:18-21/22:17	26:3	28:4/35:12/28:13/48:4
축복(다스림)	12:3/17:4-6	26:3	28:3/28:15/35:11/48:3
열방에 대해	12:3/17:4-6	26:4	28:14

[2] 약속의 실체를 누리기 까지

하나님 나라를 공유한다(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나면 대부분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 나라는 내게 어떤 구체적 상관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 나라가 어떤 실체이며, 무엇을 해야 할 지 언제 알았을까요? 오랜 시간이 걸린 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목적은 백성이 그 나라의 실체를 궁극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 실체를 몰라도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고, 인생의 굴곡 속에서 무슨 뜻인지 묻고 씨름해야 합니다(마 7:7-8). 그러면 순종의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리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물을 볼 때 먹음직한 것은 알지만 맛은 모릅니다. recipe 대로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아야 요리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과 후손과 축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깃했겠지만 말씀의 영향은 실질적으로 끼치지 못했습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 하고(15 장), 이스마엘 낚고는 14 년간 아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집니다(16 장)).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75 세에 부르심을 받고 120 세 정도가 되었을 때서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확실했고, 그것을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히 11:17-19 참고). 이삭과 야곱도 긴 시간에 걸쳐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두 붙들었던 것은 종종 주시곤 했던 반복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3]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시대를 거쳐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70 명의 가족들이 이민자로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 가족사의 기저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 12:1-3 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1 차적 성취를 이룹니다. 백성에 관하여 47:27, 땅에 대한 약속은 50:24 에서 다시 주어집니다. 다음 주에 볼 출애굽기는 번성한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한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한 가족과 민족의 역사 속에서, 대나무가 하마디씩 매듭지어가는 것처럼, 성취의 단계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집니다. 이 나라를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창 3 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창 3:15 (to 뱀)**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 → 하와: 하와의 한 후손 → 뱀(사탄)의 머리를 침

**창 22:18** “네가(아브라함)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손’은 그리스도(구원주)입니다. 구원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셔서 그 나라의 축복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구원주를 예언하는 창세기 약속은 희미했지만 점진적이고 더 선명한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 타락, 구원의 시작과 초기 과정을 보면서 나와 공동체의 여정, 이 세상 역사의 DNA 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땅의 어느 것도 주님 사랑으로 지어졌지만 모든 피조물은 타락하여 자기 순기능과 잠재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창조와 타락의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보내주신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를 약속의 말씀의 날개 아래에서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섭리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들도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나눔의 질문>**

1.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가족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까요?
2. 때마다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헤쳐 나가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자신의 방식을 자유롭게 말씀해 봅시다.